

만남

2016 1월
통권 132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_____	3
신부님 칼럼	성모의 노래(루가 1,46-56) _____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큰 잔치의 특례 비유(루카 14,15-24) ——	5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23~125 -----	8
기도 소개	아침 기도 _____	16
찬 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_____	18
공동체 소식	_____	19
지방 공동체 소식	_____	23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_____	24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_____	25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_____	26
미사안내	_____	27

《교황님의 1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종교간 대화

다양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진지한 대화로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시다.

❖ 선교 지향 - 그리스도인의 일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대화와 형제애를 통하여 분열을 극복하도록 기도합시다.

교황님의 권고 기도문(2015.12.8-2016.11.20)

2016년 11월 달까지 미사 전에 바칩니다.

†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자캐오와 마태오를 돈의 종살이에서 풀어 주시고,
피조물에서만 기쁨을 찾던 간음한 여인과 막달레나를 구원하셨으며,
베드로가 배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나이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보이는 얼굴이시며,
용서와 자비로 모든 이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시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갈아입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기름을 부어 주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열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중의 비전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46-56)

장미꽃에서 장미 향기가 나오고, 국화꽃에서 국화향기가 납니다.
소나무에서 솔향이 나고, 향나무에서 향나무 향이 납니다.
불 켜진 촛불은 스스로를 태우며 환한 빛으로 주위의 어둠을 밝히고
스스로를 불사르는 향은 악취를 몰아내고 방안을 향기롭게 합니다.

가슴 가득 하느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마리아의 입에서 찬미 노래가 나오니
다. 성모의 노래(Magnificat)는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옹달샘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듯 가슴에서 흘러넘치는 노래입니다.
Magnificat은 온 몸과 삶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비(慈悲)하신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한 마리아의 가슴은
노래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꽃이 되고 향기가 되어 하느님의 큰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제 당신이 Magnificat을 노래할 차례입니다.
행여 입술로만 노래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꾹꼬리 같은 목소리로만 노래할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탐욕과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번 달 당신의 말 한마디와 미소가,
당신의 손길과 발걸음이 Magnificat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큰 잔치의 특례 비유(루카 14,15-24)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65번, 1절 노래하겠습니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어 당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보려고 가는 길ियो.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대요.’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말씀의 나눔이 떠오르지 않을 때, 아래의 나눔을 선택할 수도 있다.)

-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는 마지막에 가서 받는 선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통해 미리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미사는 어린양의 잔치이며 하느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천상 예루살렘 잔치를 미리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의 초대장에 우리 각자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 저 일 등을 핑계로 이 초대를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는 마지막에 가서 받는 선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통해 미리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미사는 어린양의 잔치이며 하느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천상 예루살렘 잔치를 미리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의 초대장에 우리 각자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 저 일 등을 핑계로 이 초대를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65번장 노래하겠습니다.



- 신덕 - (보충 교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다. 흔히 교우들을 지칭할 때 '신자(信者)'라는 말을 쓴다. 즉, '믿는 사람'이란 뜻이다. 물론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등과 같이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믿음이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느님의 초대에 응하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다한 응답이며, 하느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의 대상은 하느님과 그분의 구원 계획이다. 그런데 믿음은 감상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 확실히 안 뒤에 믿고 따르는 지적 행위(요한 1,18)요, 자유의사로 하느님께 자신을 송두리째 내맡기고 경배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행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의지행위(로마 1,5)이며, 이렇게 하느님을 알고 그분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것은 또한 사랑의 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행위는 전인적(全人的)인 행위이다.

세례받을 때 주어진 믿음은 계속 자라 알찬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숙을 위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더욱 깊이 알도록 공부하고 성서를 읽고 기도하며 성사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근본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만일 믿음이 우리의 생활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곧 믿음은 생활인 것이다. 믿음은 우리 생활의 근본인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활은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생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생활, 믿음을 증거하는 생활이다.

교리123

신앙의 목표(10)**10. 덕(德) - 향주삼덕(尙主三德) - 망덕(望德)**

향주삼덕(尙主三德), 곧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향해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고 참된 삶을 지향할 때 형성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신덕(對神德) 혹은 향주덕(尙主德)이라 합니다.

향주덕(尙主德)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평가되는 윤리덕(倫理德)- '사추덕' 과

구별되는 것으로 하느님과 관계에서 얻는 덕, 곧 신덕(信德), 망덕(望德), 애덕(愛德)을 가리키는 가르침입니다.

희망, 망덕(望德) - 사람들 가운데는 낙관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쾌활하고 무엇이든지 잘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울해지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염세주의적 성향에 대해서도 쉽게 기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희망, 즉 망덕은 단순한 낙관주의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희망은 확실한 신뢰로서, 아직 와 있지는 않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식 때 주례 사제는 세례 대상자에게 “당신은 교회로부터 무엇을 구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세례 대상자는 “신앙을 구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믿기 위하여, 신앙의 인간이 되기 위하여 준비된 이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남선녀(善男善女)가 혼인서약을 할 때, 서로 사랑할 것인가를 다짐받기에 앞서 서로 신뢰하며 존경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배우자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라야 고통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희망은 신뢰 위에 핀 꽃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신뢰하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신앙인은 이런 못 믿을 세상에서, 못 믿을 인간까지 신뢰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상처만을 보지 않고 그들 안에도 계시는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처럼 자비롭게 살기로 작정한 지독한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뒤 그 안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고, 이레째 되는 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안식을 취하신 것도 하느님께서 그만큼 세상 피조물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때때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때 아니게 눈이 내리는가 하면, 제 때에 꽃을 피우지 못하여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피조물을 신뢰하신 하느님은 자연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십니다. 믿

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인간을 신뢰하십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만일 하느님이 나를 판단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게 ‘나’의 잣대로 나를 재지 않으셨습니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들은 척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이 믿음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렇게 숨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 신뢰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읽고 내 인생에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자가 쾌유를 희망하고,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평화를 희망하듯이 우리는 지금 살아 숨 쉬는 이 자리의 고통에서 멈추지 않고 다가올 시간과 믿어 주시는 하느님 안에서 오늘과 내일을 희망하며 일어납니다.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도움으로 삼는 이 자기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 그분은 하늘과 땅을,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붙잡힌 이들을 풀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며 주님께서는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시편 146,5-9)

망덕(望德)은 낙관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망덕은 냉정하게 어려움들을 감수하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희망은 이 세상에 발전이라는 낙원을 건설하려는 것이나 이 세상에 기술이나 의학, 인간의 지식이나 힘에 의해 고통과 죽음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것은 믿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희망은 하느님께 바탕을 두고 있으며,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초하고 있으며(히브 6,19-20. 교리서 1820), 희망은 성령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희망을 일컬어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을 열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희망의 참된 바탕이시며, 참된 목적입니다. 희망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의 사물에 자리 잡고 있는 비관적인 생각들을 극복해줍니다. 그 이유는 희망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죽음의 모든 승리를 없애버리셨다는 신앙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시듯, 우리의 믿음 또한 남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희망을 일으켜 줍니다.

믿음을 받듯이, 여러분도 믿어주십시오.

어제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의 세계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124

신앙의 목표(11)

11. 덕(德) - 향주삼덕(尙主三德) - 애덕(愛德)

향주삼덕(尙主三德), 곧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향해 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고 참된 삶을 지향할 때 형성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신덕(對神德) 혹은 향주덕(尙主德)이라 합니다.

향주덕(尙主德)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평가되는 윤리덕(倫理德)- ‘사추덕’과 구별되는 것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덕, 곧 신덕(信德), 망덕(望德), 애덕(愛德)을 가리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 애덕(愛德) - 요한 복음 15,9-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5장 9-17절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 는 말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식의 표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말이 사랑의 고백이 되어 상대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며 은근히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물건처럼 선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회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소유 개념이 우리 자신과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말도 되겠지요. 소유는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사랑하는 사람도 싫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종교도 여기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종교도 선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유아를 둔 어머니에게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아기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자기는 아기가 다 자라 생각하고 선택할 나이가 되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생각을 아직 하지 못하는 아기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유아를 억지로 천주교신자로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씁쓸합니다. 그 부모는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가 봅니다. 이 부모의 사고는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보게 된 어느 목사의 강연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그 강연은 실로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택을 잘 해야 한다면서 결혼 상대를 잘 선택해야 하고 종교를 잘 선택해야 하고 민족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교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속한 종교와 교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그리스도교를 선택한 나라는 잘 살고 불교를 선택한 나라는 가난하고 이슬람을 선택한 나라는 폭력적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종교인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한 15,16) 인간은 선택 품목이 아닙니다. 민족이나 종교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시장에서 상품 고르듯이 인간이 고를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알라, 부처와 공자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내가 한국인은 것은 내가 골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부모가, 부모에게 자녀가 선택 품목일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여 한국인이 된 것이 아니며 하느님을 선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인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신부가 되게 하고, 수녀가 되게 하고, 아버지가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했으며, 한 남자의 아내가 되게 하고 한 여인의 남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선택하여 세상에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을 선택하여 낳은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자매 또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가 선택한 사람으로, 아내가 남편을 자기가 선택한 사람으로 여기는 데서 불화가 일고 파탄도 생겨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로 다가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와 그렇게 인간과 사랑과 종교와 민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길 때, 인간은 서로 버리고 미워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깨달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15,9-10)

그분의 사랑은 소유의 지평을 넘어 펼쳐집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뽑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두를 하느님의 선택된 인간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를 벗어난 사랑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기의 존재를 들여다 볼 수 있을 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 받는 존재임을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여 이 사랑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에페소서(에페 3,8-13)에서 바오로는 말한다.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이다. 바오로는 자기의 능력 없음을 자랑하며 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고, 과거의 모든 시대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혀 주게 하셨습니다.” (3,8-9) 오로지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뿜히어 인간이 되었음을 깨달은 자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자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에겐 인간 폄하와 무시와 경멸과 교만이 있을 뿐이다. 인간과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리125

신앙의 목표(12)

12. 하느님과 의 관계(relationship)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그 관계는 외적으로 맺어진 것일 수 있고, 내적으로 맺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 관계는 외적으로 오가는 물질에 따라 맺어집니다.

주고 받는다(give and take)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때론 인간관계를 외적으로만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의 의식은 자칫 받기 위해 준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요.

외적으로 오가는 것을 매개로 하여 맺어진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며 준다면, 받으면서도 받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받는 물건에만 관심을 둔다면, 거기에는 참된 우정이 형성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이 싹틀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받기만을 원하고 그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과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청하면서 받기만을 바라는 기도는 진실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고받는 외적인 관계 속에서 하느님을 믿으며 외적인 기도만을 바칠 때가 많습니다. 은총을 달라, 병을 치유해 달라, 고통을 덜어 달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받을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하다보면, 기도를 한 만큼 은총을 받았다 싶으면 기쁘고, 그렇지 못하면 준 것이(기도한 것이) 아까울 정도로 하느님의 무심이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들어줄 하느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께 청한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바친다면, 설사 기도해 파묻혀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께 대한 신앙과 그리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에서는 북받치는 열정도 나의 관심사에 대한 애착일 뿐,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오 20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마태 20,22)

하느님께 청하면서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청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건강을 청했을 때 건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건강을 빌었는데 아직 그 건강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느님께서 내게 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 늦춘다고 생각하십시오. 비로소 하느님과 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안네 신부

거룩한 시간(아침)

하루의 시간 시간마다 제 특성이 있다. 그 중에도 우리에게 가장 뚜렷이 느껴지는 것이 셋 있다. 아침과 저녁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는 낮이 그것이다.

1. 아침

다른 시간이 오기 전에 아침의 씩씩한 얼굴부터 빛난다. 아침은 하나의 시작이다. 매일 아침마다 태어남의 신비가 새롭다. 생명을 젊게 하는 잠에서 깨어나면 심신이 맑고 힘이 난다. 사는 맛이 난다. 삶 자체가 절로 기도가 되어 삶을 베푸시는 분께로 올라간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 제가 살고 있음을 감사드리나이다. 저의 존재와 모든 소유 너무나 고맙나이다.」 이처럼 새로운 생명의 충동으로 우리는 하루의 일과에 임하게 된다. 그것도 기도가 된다.

「주님, 당신 이름으로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나이다. 이 하루가 주님을 위한 봉사가 되게 하소서.」 아침의 거룩한 시간이란 이런 것이다. 생명이 잠에서 깨어 스스로를 느끼면서 조물의 꾸임 없는 감사를 드린다.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새로운 창작과 새로운 일과에 임한다.

그러고 보면 하루의 첫 시간이 얼마나 결정적인가, 그 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기가 하루를 시작 없이 시작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도대체 「하루」라는 날이 아니라 아무 뜻도 모습도 없는 시간의 한 오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라는 날은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 하루는 뚜렷한 의향을 요구하는 하나의 일이다. 하루는 나의 일생이기도 하다. 나의 일생도 하루라 할 수 있다. 거기에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한다.

아침기도 I

주님,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또 이웃 형제를 통하여 드러나는 당신 사랑을 보며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나약하고 겁이 많으며
 마음은 쉽게 꺾여 방황합니다.
 그러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힘껏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때가 익으면 저절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 보겠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때가 차면 트이는 것
 그 어떤 걱정도 때를 앞당길만한 힘은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를 살고 다가올 내일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분별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매듭간 데를 모르는 고민도 하루 뭇을 정해 놓고
 알 길 없는 미래를 찾아 공연히 힘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 겸허한 행위야말로 당신이 바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실수를 곧잘 저지르는가 하면 용기를 잃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는 저를 비취 주고
 목표와 희망을 안겨 줍니다. 특히 평화를,
 당신의 사랑과 축복과 성령과 힘을 주십시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302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답가

설경욱



감사 해 요 깨 달 지 못 했 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라 는걸 -



태 초부 터 지 금까 지 하느님의 사랑은- 항 상 날 향 하 고 있 었 다는 것- 고 마 워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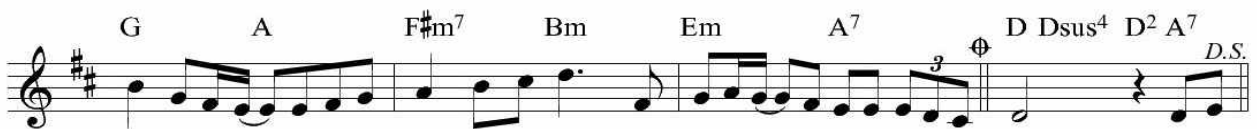
- 그 사 랑 을 가르 쳐 준 당 신께- 주 께 서 하 락 하- 신 당 신 께 그 리 스



도 의 사 랑 은- 로 더 욱 섬 기 며 - 이 제 나 도 세 상 에- 전 하 리 라 당 신



은 사 랑 받 기- 위 해 그 리 고 그 사 랑- 전 하 기- 위 해 주 께 서



택 하 시 고- 이 땅 에 심 으 셧 네 또 하 나의- 열 매 를 바 라 시 며 당 신



며 또 하 나의- 열 매 를 바 라 시 며 -

❖ 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1일	아 네 스 (St. Agnes)	유 곡 지 김 잔 디 정 진 아 김 혜 원 정 인 실 정 선 미	27일	안 젤 라 (St. Angela Merici)	남 창 순 최 희 주
			28일	카로리네 (St. Karoline) 토마스 아퀴나스 (St. Thomas Aquina)	김 계 희 백 정 선
			31일	요한 보스코 (St. John Bosco)	강 석 길

❖ 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 리 아	이복심(B) 신유민(H)	19일	마 리 오	김형철(O)
5일	시 메 온	김석주(H)			
8일		Giersberg Sigrid(O)	21일	아 네 스 (St. Agnes)	강나래(H) 정순자(H) 김혜경(O) 이인영(B)
17일	안토니오 (St. Antony) 셀리아	문철주(H) 김신자(H)	27일	안 젤 라 (St. Angela Merici)	김영희(H)
18일	크리스티나	김미영(O)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St. Thomas Aquina)	고광완(B)

❖ 1월 미사 전체 봉사자 ❖

1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1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데타)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김진호(프란치스코) 곽케빈(요셉)	전체신자
3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요셉 마리아회
10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데타)	주일학교 봉사단	1구역
17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박귀동(토마)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봉사단	2구역
24일	강순행(말가리다) 이명자(가밀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이정수(토마스) 이현묵(요셉)	3구역
31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매자(베로니카)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4구역

❖ 1월 성가번호

1월	입 당	봉 헌	마 침
1일	44	217	259
3일	487	212	485
10일	1	210	479
17일	25	216	39
24일	329	512	34
31일	401	220	61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1월 4일	✠ 문명숙 마리아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월 18일	✠ 전성숙 안젤라	
1월 23일	✠ Franz,Karl-Heinz	
1월 27일	✠ 박태덕 수산나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1월 29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
계(€)	371.67	209.03	208.10	322.21

❖ 자진헌납금 ❖

2015년 11.23—12.20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강신행, 김부남, 김형웅, 이수웅, 박춘실, 배성우, 박종래, 강순행, 서세원, 심동근,
우동천, 이기열, 이경규, 이철우, 이영원, 이종화, 이현묵, 이정수, 이영희, 박재형,
정마리아, 정명옥, 정정숙, 최순남, 최장용, 박귀동, 윤예진, 손수희, 이공종, 박경원,
김용일, 이석우, 김기연, 육종인, 박성아, 민경화, 김민수, 이종지, 이정은, 진윤희,
한선지, 한말조, 이원화, 박성금

구좌입금 :

강일남, 김대현, 김동수, 김진호, 마르타 Eilinghof, 김치수, 남궁 춘배, 백정선, 최화영,
최성자, 최현봉, 홍경영, 허채열, 허길조, 허두욱, 곽케빈, 이성원, 이상봉, 방영자,
서유미, 오옥수, 김유석, 권지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월부터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가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바쳐집니다.
일시 : 2015.12.8 - 2016.11.20

2. 2년 동안 수고해주신 사목협의회와 각 구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 각 소공동체 기도 모임의 호칭은 ‘복음 나누기 기도회’ 라고 바꿉니다.
각 구역의 봉사와 아름다운 친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복음 7단계 복음 나누기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기존 시간(금요일) 17:00에 새로운 기도 회합이 구역에 관계없이 구성됩니다. (2구역, 청년, 요셉 마리아회 제외)

4. 예비자 김보경 자매님, 김경미 자매님, 김 건 형제님, 노하빈 자매님, 이희자 자매님께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5.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시길 청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함부르크 교구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6. **함부르크, 브레멘, 하노버, 오스나브뤼크, 오슬로 공동체에서 신약(혹은 구약) 완필자입니다.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윤주해 프란치스카, 박경자 세라피나, 김순임 안나, 이수웅 필립보, 김진호 프란치스코, 김매자 베로니카, 송옥자 엘리사벳, 백정선 토마스 아퀴나스, 강순행 말가리다, 정마리아 마리아, 이영희 세실리아, 현영애 헬레나, 이명자 가밀라, 정명옥 살로메, 허길조 안드레아, 황옥순 데레사, 박경자 세라피나, 허채열 크리스티안, 방조영자 켄마, 김(이)원자 막달레나, 문정자 루치아, 이정옥 크리스티나, 최한우 바오로, 김혜경 아네스, 김호현 베드로, 김상숙 바르나바, 김영희 클라우디아, 심은희 안나, 문경영 아가다, 김경자 데레사, 김영희 안젤라 손수희 모니카, 권지연 안드레아, 김영자 데레사, 김영숙 아나스타시아

전성경 완필자 - 최영숙 데레사, 김정숙 마르타, 김애란 세실리아, 김유석 그레고리오, 이순자 마리아 임마 꼴라따, 김순자 켈두르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브레멘 공동체 12 월 정기미사는 문 안드레아 신부님의 집전으로 봉헌 하였습니다. 문 신부님께 감사 드립니다.
3. 브레멘 음대에서 성악 전공을 하는 유혜선 플로라 자매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2. 11월과 12월에 은총의 판공성사가 있었습니다. 송년회 준비해 주신 공동체와 청년회에 감사드립니다.
3. 정영호(요셉), 김태형(바오로), 김해(요셉) 형제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2월 12(토),대림 3주일 미사에 오스나브뤽 교구 Bode 주교님께서 공동체 사목방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문 재상 신부님의 주례로 신 윤경 가브리엘라 자매님의 아기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2. 시리아 난민돕기 성금 155유로 모금되었습니다.(본당 구좌에 입금)
3. 새해부터 공동체 회장직 봉사를 노금순 데레사 자매님이 맡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집전화 : 0541- 5062637)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한 말 조 마리안나	040/ 5069 7342 0157 7021 0466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장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허 길 조 안드레아	040/ 555 3441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2016 새 구역장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속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김 수 희 모니카		04106-72958
		3구역	구역장	김 형 웅 야고보		0157 84305419
			총 무	김 정 자 켄 마		6310912
		4구역	구역장	정 명 옥 살로메		6448623
			총 무	이 순 자 마리아		41091742

❖ 2016년 1월 ❖

1 월 중 행 사 예 정 표

일	요일	축 일	기관단체 행사	비 고
1	금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신정	15:00 예수 성심성당	
2	토	성 대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학자		브레멘 공동체
3	일	주님 공현 대축일	사목협의회	
4	월			
5	화			
6	수	소한		
7	목		꾸리아	
8	금			안명옥 주교 주교 수품일 금육
9	토			오스나브뤽 공동체
10	일	주님 세례 축일	청년 소공동체	
11	월	연중 제1주간 월요일		
12	화			
13	수			
14	목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15	금			금육
16	토			
17	일	연중 제2주일		
18	월	일치주간		
19	화			
20	수			
21	목	성녀 아네스 동정 순교자 대한		
22	금			
23	토			하노버 공동체
24	일	연중 제3주일		
25	월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순교자 정찬문 안토니오 치명일(1867년)		
26	화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27	수			
28	목	성 토마스 아퀴나스	연령회	
29	금			금육
30	토			
31	일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한 말 조 마리아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본당신부님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